

19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471.17 (-398.66)	824.46 (-9.74)		
↓ 금리 (국고채 9년)	↓ 환율 (원-달러)		
3.810 (-0.037)	1398.80 (-13.00)		

SK하이닉스, 40조 자사주 소각 “주주가치 제고”

총 발행주의 3.3%, 3개월간 소각
3년 누적 FCF 50% 주주에 환원
삼성전자, 매년 9.8조 정규배당 등
환원 확대방안 마련, 3분기 공개
주주운동본부, 기자회견 열고
삼전 170조, 하닉 100조 환원 요구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으로 현금이
불어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40
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고 환
원 기준까지 높은 가운데 삼성전자도 특
별배당을 포함한 올해 환원 방안과 차기
정책을 논의 중이다. 이날 주주단체도 양
사에 총 270조원 이상의 환원을 요구함에
따라 양사의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이
익의 배분 이슈가 전례없는 관심사가 되
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
날 이사회를 열고 40조원 규모의 자기주
식을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종가인 주당 166만2000원 기준
2407만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약 3.3%
다. 오는 20일부터 약 3개월간 장내에서
취득한 뒤 전량 소각한다. 국내 상장사의
자기주식 소각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주주환원 규모도 확대한다. 2025~
20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범위 내'였던 기존 기준을 '50% 이
상'으로 높이고 자사주 취득·소각과 현금
배당을 병행한다. 특별배당 등 배당 확대
도 검토한다. 추가 환원 규모와 방식은 3
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한다.



왕이 中 외교부장 ‘韓 정세 논의’ 입국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 19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확대 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 현행 2024~2026년 정책은 3
년간 발생한 FCF의 50%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매년 약 9조8000억원을 정규
배당하는 구조다. 올해 정책 종료로 앞둔
고 특별배당을 포함한 올해 환원 방안과
차기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주주 측도 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
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경기
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
성전자에 170조원 이상, SK하이닉스에
100조원 이상의 주주환원을 요구했다. 양
사의 경영성과 연동 성과급에 대해서도
이익처분에 해당해 주주총회 결의가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삼성전자170조원, SK하이닉스100조원의
환원은요구의 시작점”이라며 “성과 보상은
주주총회의 승인 아래 얼마든지 가능하
지만 우리가 막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주인의
동의 없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지난달 전영현·노태문 삼성전
자 대표이사와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근거로 제
시한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은 삼성전자O
PI(초과이익성과급)의 평균임금상 임금
성을 부정했지만 성과급 지급의 주총 결
의 필요 여부나 배임 여부는 판단하지 않
았다.
삼성전자의 특별경영성과급은 지난 5

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아래
추가 교섭을 거쳐 노사가 합의했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현금창출력이 커지면서
설비투자자 임직원 보상에 이어 주주환
원까지 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
되는 양상이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
O)는 지난달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를
에서 “현재 이사회와 경영진은 특별배당
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차기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믿고 기다려주시
주주 여러분께 곧 공유드리
겠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기준금리 인상 한 달… 장기채 금리 폭등 ‘시장긴축’ 돌입

국고채 3년물 금리 사실상 제자리
10년물 8.5bp, 30년물 28.3bp ↑
물가·통화 불확실성·주식호황 등 요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75%인데 국고
채 10년물 금리가 4.4%에 육박해 장기 시장
금리 경로에서 이른바 ‘시장 긴축’이 먼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2면>
장기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시장 긴
축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부담을 키
우지만, 성장률 상향과 물가 상승, 가계
부채 확대는 긴축 기조를 접기도 어렵
게 만든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금융통
화위원회를 앞둔 한은의 선택이 한층
복잡해졌다.
◆ 3년물 제자리인데 30년물은 28.3bp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고
채 3년물 최종호가 수익률은 연 3.847%
를 기록했다. 10년물은 4.382%, 30년물

은 4.751%까지 올라갔다. 30년물은 역대
최고치다. 이날 장중에는 전날 급등분을
일부 되돌렸지만 10년물은 여전히 4.3%
대 중반에서 거래됐다.
만기별 흐름을 보면 장기금리 상승이
더 뚜렷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2.50%
에서 2.75%로 올린 지난달 16일과 비교
하면 국고채 3년물은 3.848%에서 3.
847%로 사실상 제자리다. 반면 같은 기
간 10년물은 8.5bp(1bp=0.01%포인트),
30년물은 28.3bp 뛰었다.
이 같은 시장금리 상승은 다음 기준금
리 인상에 대한 기대만으로 설명하기 어
렵다는 의미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더 크게 오르면서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물
가와 재정 불확실성을 장기간 떠안는 것
과 국채 수급, 해외 장기금리 상승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도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장기금리는 미래 단기금리에 대한 기대
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구성된 최근에는
기간 프리미엄이 상당폭 상승했다고 분
석했다. 물가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국
고채 발행 확대,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
금 이동,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 변화 등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대외 여건도 국내 장기금리를 밀어 올
리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 30년 만기 국
채금리는 장중 5.327%까지 올라(채권값
하락)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10년물도 4.739%까지 상
승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
른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제 발행 확대가 장기물 수급 부담 요인
으로 거론됐다.
미 국제금리는 글로벌 장기금리의 기
준 역할을 한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

국채도 해외 투자자에게 그만큼 높은 금
리를 제시해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을 유
지할 수 있다.
◆ 가계빚 2000조·성장률 3.2%
장기금리 급등이 곧바로 기준금리 동
결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한은
이 발표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
을 넘어섰다. 전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다.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대출이 함께 증
가했다. 한은은 특히 기타대출 증가에 주
식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했다. 가계신용 통계의 기준 시점은 6월
이므로, 7월 기준금리 인상과 8월 장기금
리 급등이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이번 수치에 나타나
지 않았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美 반도체주 급락에 코스피 5.80% 폭락

코스피가 검은 수요일을 연출했다. 미
국 반도체주가 급락한 가운데 중동 긴장
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글로
벌 국제금리까지 상승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 붙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
피는 5.80% 내린 6471.17에 거래를 마감
했다. 오전 한 때 낙폭이 커지면서 프로그
램 매도가 일시 중단되는 매도 사이드카
가 발동됐다. 올해 코스피에서 발동된 25
번째 매도 사이드카드다.
코스닥은 1.17% 하락한 824.46으로 마
감했다.
국내 증시의 약세는 전날 미국 반도체주
가 줄줄이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
일(현지시간) 미국 다우존스와 S&P500은
각각 0.22%, 0.69% 하락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33% 떨어졌는데, 특히
반도체주들이 낙폭을 키웠다. 마이크론(-
7.02%), 인텔(-6.58%), ADR(-4.07%) 등
미국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SK
하이닉스 미국주식예약증서(ADR)도 9.
20% 폭락했다. 이에 필라델피아반도체지
수는 4.98%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 398.66 하락 6471.17 마감
매도 사이드카 발동… 올해 25번째
삼전 7%대, 하이닉스 9%대 하락
환율 10개월여 만에 1300원대 마감

미국발 약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스는 각각 7.82%, 9.75% 하락한 24만
7500원, 15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이란의 협상이 성과 없이 시한을
넘긴 점도 증시에 부담을 줬다. 이란은 미
국과의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분쟁의
완전한 종식을 원한다고 아바스 아라그
치 이란 외교장관이 18일(현지시간) 밝혔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란
을 향해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고
압박하며 긴장감을 키웠다.

중동 위험 고조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날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2.65% 오르며 배럴당 91.02달러를 기록
했고,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며 미 30년물
국제금리는 이날 장중 5.33%까지 치솟았
다.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
다. 이날 일본 10년물 국제금리도 장중 연
2.945%까지 오르며 30년 만에 최고 수준
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
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97.7원으로 마
감했다. 환율 1400원이 깨진 것은 작년 10
월 2일(1399.5원) 이후 10개월 만이다.
환율 하락은 연준의 9월 인상 기대 약화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수출업체들도 달러
매도 물량을 출화하면서 달
러 하락 압력을 가하는 모양
새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노경필 “대법원장에 제청권…대통령은 임명권
행사하면 돼” /사진 뉴시스
▲‘1심 무죄’尹 위증혐의 2심 내달 16일 선고…벌
금 1000만원 구형

▲조태용 前국정원장 2심 징역 2년6개월…‘정치
관여’ 유죄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생태공원 조성…친환
경 산단 구상

▲오세훈 “서울 출생아 26개월 연속 증가…반등
흐름 더 키울 것”
▲수시 원서접수 3주앞…수험생 10명중 9명 “지
원대학 다 못 정해”